

상악골 부분절제술이 시행된 구강암환자에서 즉시 구강폐색장치의 적용 : 증례보고

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,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치과보철과
남기영

악안면 종양의 외과적 절제에 의한 해부학적 결손은 환자에게 저작 장애, 연하 장애 등의 기능적 문제와 발음장애 및 심미적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. 특히 상악구개부 결손의 경우 음식물과 액체가 비강으로 유출되고 이 결손부로 공기가 누출되어 과비음 발생 및 감염 가능성이 존재하며 압박거즈 드레싱에 의한 환자의 통증호소 등 수술직후 환자의 회복관리 및 재활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.

상악절제술 직후 구강 및 비강간의 개통결손부에 즉시 적용되는 술후 즉시폐색장치는 수술 직후 붕괴된 비구강계 환경을 일정기간동안 잠정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장치는 연조직을 지지하여 상처의 수축, 심미적 불리함 그리고 감염가능성을 최소화하고, 특히 비강 영양튜브삽관의 배제로 인한 개선된 연하 및 저작으로 영양공급과 발음을 유지시키므로 술 후 약 1-2주 후 위치되는 지연폐쇄장치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. 상악절제술 후 결손부 폐쇄영역 디자인은 일차적으로 외과의사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으나 장치는 차과에서 술전 제작모형에 의하여 준비 및 가공되므로 본 즉시폐색장치가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집도의와 보철전문의간의 원활한 다학적 접근이 필요하다.

본 증례에서 상악골 부분 절제술이 시행된 Aramany classification 1 환자들에 대한 본원 이비인후과와 다학적 공조를 통한 즉시 구강폐색장치를 적용하였으며 술후 환자의 재활 및 치유의 촉진, 심리적 안정 그리고 안정적인 추후 정규보철물제작 이행과정을 도출하였기에 그 유용성을 보고하는 바이다.